

정부·기업·투자자가 해냈다... 증시로 '초고속 머니무브'

코스피 6000 시대

1 한 달 새 '압축 상승'

"이게 현실인가요? 보고 있지만 믿기지 않네요", "5000 때 익절했는데 후회되네요. 우물쭈물하다가 7000 같까 봐 추매고 민하게 됩니다", "이젠 올라갈 재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인버스라도 해보려고요"

25일 코스피가 장중 6000포인트를 찍자 개인투자자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믿기지 않는다는 탄성, 놓쳤다는 조급함, 이젠 꺾일 거란 경계심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처럼 엇갈린 반응이 쏟아진 배경에는 '너무 빨리 와버린 6000'이 있다. 숫자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그 숫자에 닿는 데 걸린 시간은 더 낮았다.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으로 가는 데 13년5개월, 3000에서 4000까지 4년9개월이 걸렸는데, 4000에서 5000은 3개월, 5000에서 6000은 1개월이 소요됐다. 지난해 10월27일 4000을 처음 넘긴 뒤 올해 1월22일 장중 5000을 찍고,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6000선까지 밀고 온 셈이다.

AI메모리 호황, 반도체 기대 확산
삼성·하이닉스 실적 개선, 지수 견인
HBM 슈퍼사이클, 이익 레벨업 부각
해외 대비 독보적 상승, 실적이 배경

단순한 과열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실적 개선과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증권주 강세가 지수의 체급을 끌어올렸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상법 개정 논의는 주주환원 기대를 키웠다. 여기에 은행 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무는 사이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면서 지수 상승 속도가 더 붙었다.

◆6000 까지 '압축 상승'... 독보적인 '상승 기술기'

이번 랠리가 더 도드라지는 건 해외 주요국과의 대비에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44.37% 수준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는 2.31%, S&P500은 0.65% 상승에 그쳤고, 나스닥은 오히려 1.63%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 13.02%, 대만 가권 20.66%, 영국 FTSE 100 지수 7.33%, 독일 DAX 1.82%, 중국 항셱H 1.45% 등도 상승하긴 했지만 코스피의 폭발적인 상승과는 비교하기 어려웠다. 코스닥 역시 25.91% 이상 오르며 '한국 만의 강세장'이 연출됐다.

코스피의 상승세를 위협하는 대외 변수도 발생했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계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관세 부과로 대응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고, 장 초반 5900을 넘겼던 지수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장면도 나왔다. 그럼에도 관세라는 재료가 반복 노출되며 '학습'된 변수로 인식됐다는 해석이 뒤따랐고, 코스피 상승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유동성이 뒷받침된 결과다. 전세계 시장에는 돈이 넘쳐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국경 간 은행 신용이 45조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에 도달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이 각국 정부와 기업, 금융기



정은보(아랫줄 왼쪽 세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황성엽 금투협회장, 강민국 정부위원회 국민익힘 간사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6000p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관 등에 제공하는 대출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의미로, 세계 경제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은행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23.6회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예금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통장에 있던 돈이 증시 등으로 더 자주 이동했다는 의미다. 실제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51조5379억원으로 전월 대비 22조4705억원 감소했다. 정기예금 잔액도 줄었다. 반면 투자자 예탁금은 1월 평균 예탁금은 106조3244억원을 기록했으며 100조원 돌파 이후 100조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111조를 넘기기도 했다. 낮은 금리도 자금 이동(머니무브)을 부추겼다. 5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05~2.90%로 3%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금에서도 변화가 포착됐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DC·IRP형 계좌에서 연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상위 10개 중 국내 주식형이 5개 포함됐다. 10위권 내에 국내 주식형이 없었던 2024년, 1개에 그쳤던 2025년과 비교하면 연금 투자의 방향성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거래대금 급증, 대형주 동반 강제
예금 2%대, 자금 증시로 이동
예탁금 100조대, 유동성 버팀목
주주환원·자사주 소각, 재평가 불씨

지수가 먼저 뛰자 증권가의 눈높이는 빠르게 7000대로 이동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잇따라 목표치를 7000선 이상으로 상향했고 12개월 선형 주당순이익(EP S)과 12개월 선형 주가수익비율(PER)을 결합해 밴드 상단이 7300~7900까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외 IB 역시 7000~8000 구간을 제시하며 한국 증시의 이익 레벨업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도체·3차 상법개정안, 코스피 '1만' 시대 초석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한 이정표엔 그 시대의 주역이 있었다. 1000 돌파가 '3저 호황' 속 건설·철강·상사의 트로이카가 주도했다면 2000선은 중국 특수에 기반한 조선·해운·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이 견인했다. 코로나로 풀린 엄청난 돈이 기반된 3000 시대는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중심의 열기였고, 이후 5000에서 6000까지의 쾌속 질주는 AI 반도체 특수에 올라탄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로봇 기술을 입은 현대차, K방산이 받쳤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코스피 '1만' 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

으로 본다.
신디 박 노무라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전망 대비 대폭 상향한 7500~8000선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12.0~13.0배, 주가순자산비율(PBR) 2.1~2.2배를 적용한 것이다. 목표치 상향의 배경으로는 메모리 업종 이익 확대

를 중심으로 한 일반 메모리 및 HBM 슈퍼 사이클, 인공지능(AI) 인프라 체인과 방산업종의 이익 강세를 꼽았다. 신디 박 연구원은 "메모리 기업들이 올해 한국 전체 순이익의 64%를 차지하며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JP모건은 반도체 시장 환경이 당분간 우호적이라고 판단해 해당 섹터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또 다른 축은 정부의 정책이다. '코스피 5000' 공약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주가 조작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는 등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이어갔다. 7월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이, 8월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

액 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배당 확대 논의도 이어졌다. 3차 상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수가 줄면 순이익과 순자산에 발행 주식 수로 나눈 EPS와 BPS(주당순자산가치)도 구조적으로 상향될 것"이라며 "코스피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약 20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7760억원 가치의 특정 목적 자사주가 강제 소각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5년 4월 1일 기준 주권상장법인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현재 최근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수치를 내놨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화손해보험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1.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3.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무)

여성의 인생은 한 챕터로 끝나지 않으니까

몸이 아플 때만 필요하던 보험에서
마음까지 챙겨주는 보험으로

현실과 멀었던 케어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함께하는 케어로(특약)

그렇게 여성의 현실을 깊이 살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9203호(2026.01.23~2027.01.22)